

출가사문 생활양식이자 수행방편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4. 경전독송 언제부터

언제부터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했을까. 불교사의 전승에 의하면, 경전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직후 가섭 존자가 발의하여 결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재세 시부터 몇 가지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초기불전들이 증명한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3에 실린 향로 무역을 위한 향해 도중,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의 향로를 바꾼 사람, 그리고 포교사의 모범이 된 인물의 이야기이다.

B.C 6세기 인도에 푸르나라는 무역업자가 있었다. 그가 무역을 위해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상인들이 갑판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푸르나를 갑판으로 이끌었다. "이윽박에 모르는 상인들이 천상의 노래를 부르다니"라고 의아스럽게 여긴 푸르나는 한 소리의 노래가 끝나자 상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군요." 노래를 멈춘 상인들이 말했다. "상주(商主)여, 이것은 노

푸르나가 물었다. "부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상인들은 슈라바스티의 절에 계신다고 대답했다. 푸르나는 그날 밤을 갑판 위에서 새웠다. 부를 찾아서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던 자신의 분방한 인생을 압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푸르나의 가슴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한다. 경전을 영송하는 소리를 듣고 회심한 푸르나는 향해 무역을 통해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진리의 바다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 가지 출가한 사문에 대해 "출가 사문의 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생활보다 하급의 생활이며 출가자는 얻어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모든 출가자는 밥을 얻어먹어야 했으며 이를 탁발이라 한다. 사실 이러한 결식은 수행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얻어먹는 고대 인도의 풍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이 그대로 불교의 수행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탁발은 일반적으로 결식(乞食), 걸행(乞行) 등으로 일컬어지며 손에 받음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밥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탁발에 대해 "가난한 집과 부자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일곱 집에서 탁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결식아동 돕기 탁발, 이재민 돕기 탁발,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 탁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탁발(托鉢)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탁발의 본래 모습은 요점 행해지는 것과 같은 '특별행사'가 아니다. 출가사문의 생활양식이자 수행의 한 방편이다.

이처럼 한 소절의 경전 말씀이 부를 찾아 바다를 오가며 항해무역업자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또한 푸르나는 대승경전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 다시 등장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항상 그 법을 설하는 사람 중 으뜸이라고 말했다"는 찬탄을 받고 있다.

경전은 불교의 표상이며 불교가 전해진 광대한 지역, 모든 시대의 문화적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지혜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여래수량품은 "여래께서 설하신 경전은 모든 중생을 고뇌에서 해탈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如來所演經典皆爲度脫衆生)"고 불교경전의 의미 정의를 한다. 그러나 수행체험과 불교적 직관이 필요한 불교연구를 학자들에게 떠넘겨버리고 "경전연구는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껴 서서 세속의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표류하는 지식방랑자가 되고 만 현대 한국승가의 실정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노고를 바쳐 경전을 읽고 대중들이 수지할 수 있는 불교의 사상과 신앙, 문화와 의례를 생성하고 조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법의 빛이 번져간 불교 원래의 무늬를 복원하는 작업인 것이다. **■ 경학회 회장**

설법제일

푸르나 존자

독경소리 듣고 귀의

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상인들의 대답을 들은 푸르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고 생각했다. <울장>은 당시 푸르나의 심경을 "일찍이 불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 푸르나는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믿음이 생겨 상인들에게 물었다"고 적고 있다.

푸르나가 물었다. "부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말씀을 외우십니까." 상인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사문인인 고오타마이시며 석가족으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으시고 가사를 입으시며 바른 신심으로 출가하셨습니니다. 그 분은 부와 나라조차 버리고 산림에 계시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셨으니 이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설법하신 <울타나송>, <제상좌송>, <세라니송>, <모니지송>, <중의경>입니다."

참불자의 길

탁발(托鉢)

결식아동 돕기 탁발, 이재민 돕기 탁발,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 탁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탁발(托鉢)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탁발의 본래 모습은 요점 행해지는 것과 같은 '특별행사'가 아니다. 출가사문의 생활양식이자 수행의 한 방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 가지 출가한 사문에 대해 "출가 사문의 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생활보다 하급의 생활이며 출가자는 얻어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모든 출가자는 밥을 얻어먹어야 했으며 이를 탁발이라 한다. 사실 이러한 결식은 수행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얻어먹는 고대 인도의 풍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이 그대로 불교의 수행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탁발은 일반적으로 결식(乞食), 걸행(乞行) 등으로 일컬어지며 손에 받음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밥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탁발에 대해 "가난한 집과 부자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일곱 집에서 탁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탁발에 대해 "가난한 집과 부자집을 가리지 않고 차례로 일곱 집에서 탁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출가 수행자의 생활은 엄중한 규율에 입각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는다. 먹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불도를 구하는 두타행(頭陀行)도 그 중 하나다.

이 두타행 중에서 일좌식(一坐食)과 부작여식(不作餘食)이라는 규칙이 있다. 일좌식이란 오전 중에 거리에 나가 음식을 얻는데, 탁발해서 얻은 음식을 오전 중 한 끼만 먹는 것으로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여식이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다. 만약 결식한 음식이 많을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결식할 때는 수행자는 반드시 네 가지 마음(乞食四心)을 가져야 한다. 심신을 바르게 하고(住正戒), 용모를 단정히 해 위의를 갖춰 보는 이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고 따르게 해야 하며(住正威儀), 법도에 따라 결식하고 부정한 생각을 여의어야 한다(住正念), 그리고 몸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고 음식

스스로 나를 낮춰

인욕하는 마음 닦아

남방불교 지금도 성행

은 겨우 몸을 지탱할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住正節)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결식의 참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슴이여, 자비심이 있다 해도 그것이 능히 두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부자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에만 가서 결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차례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일환으로 탐골공원에서 마련한 자비의 탁발행사에서 불자들이 보시를 하고 있다.

로 해야 합니다. 결식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쌓인 업을 부수기 위함이며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을 도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 음식을 얻는 것이다."

결국 출가사문이 탁발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중생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탁발을 통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낮춤으로써 아집과 아만 그리고 인욕하는 마음을 닦

김종근 기자

'서장' 통한 선 공부 ①

서현모(徐顯模)에 대한 답서

마음은 인연따라 자유롭게 나타나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니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마디 한 구절 아래에서 곧바로 계합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진실을 말함에는 털 끝 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진 것이고, '계합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허물며 다시 경전을 끌어 들이고 가르침을 들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여 구경(究竟)에 이르러자 함께 있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털 끝만 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끌이다'고 옛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면목을 아직 알지 못하고 망상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의 모래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하여도 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보

고 분별하게 되면 취하고 버림이 있게 되니 가만 갈수록 더욱 어긋나기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어긋나더라도 진실을 알고 보면 어긋남이 없다. 마치 본래 정해진 모습이 없어서 인연따라 자유롭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물의 본성이어서,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겨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더라도 본래의 물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듯이, 털 끝 만 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번갯불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래면목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면 상(相)을 따라 분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본래 모양이 없어서 인연따라 자유롭게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와 같이 인연따라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요 느낌이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이나 느낌이나 의지나 지식 등 일응일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은 어디에든 나타나 있지만 스스로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았으면 모든 곳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지만,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떤 곳을 찾더라도 어디에서도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인연따라 흘러가는 '이것'은 흘러가지 않는다.

<http://www.mindf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0-1459(김태완), 011-9520-0064(이정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당론	무전장스님(본대학장)·권기중(동국대교수)·최중석(동국대교수)·인환스님(동국대교수)·윤영수(문화재단연구원)·김호규(동국대교수)·홍석성(승가대교수)·한경성(금강선원이사장)·신진규(법사)·최봉수(동국대교수)·주병철(동국대교수)·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암도스님(전교원장)·정병조(동국대교수)·김상현(동국대교수)·김상영(승가대교수)·묘주스님(동국대교수)·차차석(동국대교수)·강휘욱(동국대교수)·문용식(동국대교수)·권관준(동국대교수)·박종(동산대교수)·보각스님(승가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 (200명) (경구반·주건반·동선반)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학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구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건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유리수업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동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학 일시** 2002년 2월 2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보련각(조계사암) 02)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755-2203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니르바나님은 내 맘속에 있다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 책은 다석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의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적 관점과 비교종교학적 관점에 반야심경을 「성경」 등과 비교해 해설을 붙여 놓았다. 저자는 각자 맘속에 있는 니르바나님을 깨닫고 그것에 의지해 '일나(法身, 영적인 나)를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生死)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박영호 지음 / 408면 / 15,000원 / 양장

다석(多) 류영모(柳永模, 1890~1981)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배라치듯 깨닫는 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다석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알기 쉽게 풀이했다.
박영호 지음 / 296면 / 13,000원

노자(빛으로 쓴 얼의 노래)
이광수, 최남선, 김교신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다석의 노자 「도덕경」 풀이.
박영호 역·지 / 408면 / 12,000원

장자(자유에 이르는 길)
어렵지만 꼭 읽어야 할 보배로운 경전, 장자의 웅장하고 심오한 사상을 명쾌하게 풀이했다.
박영호 역·지 / 463면 / 12,000원

두레의 多(다) 사상전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도서출판 **두레** 전화: (02)702-2119
팩스: (02)715-9420